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9 | JUNE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6월호 / 통권 289호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289 | JUNE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전례와 생활	18 식사 대용 간식으로서 신심행위? 22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6 기도학교 32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9
신앙과 삶	36 호모 마스크스 (Homo Maskus, 마스크를 쓴 인간)
듣다 읽다 보다	40 고전음악을 듣다 4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News & Views	61 후원방법 및 소식



### THE COVER

노틀담 드 라 가르드 성당, 마르세이유



‘마르세이유에 가면...’

지중해 최대의 항구도시이자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마르세이유에 가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성당을 마주하게 된다. 그 성당의 이름은 **노들담 드 라 가르드(Basilique Notre-Dame-de-la-Garde)** 이다. 도시 어디에서나 이 성당은 보인다. 이 성당은 마르세이유 도시의 상징물로 161m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1214년 처음으로 건축을 시작해서, 로마 비잔틴 양식의 현재 성당 모습으로 1864년에 완성되었다. 이 성당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46m의 종루 위에 있는 도금된 성모 마리아의 동상(6월호 표지 사진) 때 문이다. 11.2m에 이르는 도금된 성모상은 총무게가 9,796kg에 달한다. 성당 내부는 화려하게 채색된 대리석과 모자이크 벽면으로 화사함을 더해준다.

지난 호(2021년 5월호)에 소개한 것처럼,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 사제들은 파리에서 선교사 파견 예식을 마친 후, 곧장 마차로 몇 달에 걸쳐 이곳 마르세이유의 옛 항구(Vieux-Port de Marseille)로 와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큰 배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로 나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해적선 이었고, 그다음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였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기도 전에 해적에게 잡혀 노예가 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죽음을 맞기도 하였다. 그래서 선원들과 선교사들은 마르세이유의 항구를 떠나면서 이 성당 종루에 있는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였다고 한다. 그 후부터 많은 선교사가 아무런 탈 없이 자신들의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선원들과 선교사들의 수호성당이라고 불린다.

또 하나, 편집장 글에 있는 십자가는 **카마르그 십자가(Camargue Cross)**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십자가는 유럽의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다. 카마르그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습지대로서, ‘사람은 파리로, 말은 카마르그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 생산지이다. 이 카마르그는 예수님 부활 이후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몇몇 동료 여성들과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비록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복음을 전한 후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동료 여성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습지에서 말과 흑우를 키우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이 십자가는 그러한 카마르그(Camargue)에서 유래한 십자가로 십자가와 심장과 닮아 결합한 모양이다. 십자가는 신앙을, 심장은 사랑을, 닮은 희망을 상징한다.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보내면서, ‘나는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영식 노예구제위원장

서울대학교구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최양업(5): 가난하고 소외된 교우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제 최양업 토마스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양업 신부의 찾아가는 사목활동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의 선교 활동을 좀 더 소개하면서 그가 지닌 사제로서의 기본 덕목과 영성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하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양업 신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먼저 선택하는 사목자였다.

“제가 담당하는 그러한 공소, 즉 교우촌이 자그만치 127개나 되고, 그러한 촌락에서 세례명을 가진 이들을 다 합하면 5,936명이나 됩니다. 한 공소에 교해자가 40명 버지 50명

이 있어도 그들 모든 신자에게 하루 안에 교해성사를 다 집전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교해자가 2명이나 3명밖에 없는 공소에서 다음날 미사를 봉헌하고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만 외교인들 모르게 교우촌에 도착하여야 하고, 공소 순방이 끝나면 한밤중에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녘 동이 뜨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1851. 10. 15)

최양업 신부의 관할구역과 담당하는 신자수



배티성지 內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성당 | 유리화 | 촬영. 주호식 신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5): 가난하고 소외된 교우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제 최양업 토마스

가 비율상 조선 전체의 반이 넘었기에, 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목활동은 매우 많았다. 거기에 최 신부는 단 두 세 신자만이 모여 있다 해도 그 교우촌에 달려가 성사를 집전해주었다. 더구나 외교인들을 피해 다니기 위해 밤 중에 움직이고, 편안히 잠을 이루지도 못한 채 새벽녘에 빠져나오기도 하였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고된 성무활동이었겠는가? 그러한 고행의 사목활동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포교지의 상태는 신자들 중에서 신분의 계급 차이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므로 분열이 일어나서 큰 걱정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덕(信德)과 형제애가 부족하고, 계속되는 논쟁과 압투와 증오로 신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비건설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시정할 무슨 대책은 없는지요? …”(1854.11.4.)

최양업 신부의 성무 활동은 성사집행을 위

한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교우촌의 삶을 개선하고 사람다운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지향이 담겨 있었다. 그 바탕에는 조선 시대의 양반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 시대를 흔히 “양반제도로 이루어진 유교적 관료 사회”로 표현하기도 한다. 바로 과거제도를 통해 유교적 관료를 뽑고 유교 질서에 맞는 신분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양반과 중인, 상인, 노비로 이루어지는 신분 사회를 유지하고 맡은 직무를 다하는 질서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 최양업은 사목 방문을 하며 양반들이 권력을 위해 자행하는 일들을 폭로하며, 제도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우리 조선에서 양반이라는 자들에 대한 여론을 말하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가진 양반 자신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양반 계급의 독선, 오만, 횡포, 부도덕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온갖 비참함의 원인임을 시인하며 지켜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폐례울) 주교님은 양반 계급만 너무 편애하시어 이미 너무나 비

참하고 억눌러 있는 일반 서민들을 더욱 억누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들 사이에 낯이 더욱 불화가 심해지고, 많은 이들이 의분을 느끼고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 그런 제도하에서는 형제의 우애와 애덕이란 것이 있을 수 없고, 천부적 인권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 이러한 제도는 그리스도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실행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의 편을 드시고, 교만한 자와 천세 있는 자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본래 부자와 세력가에게는 아부하고, 가난뱅이와 비천한 자들은 외면하고 뿌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1857. 9. 15.)

최양업은 교회내에 활동하던 양반 가운데서도 신분이 낮은 교우들을 억누르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면서 ‘천부적 인권’, 곧 근대의 평등사상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공생활 자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삶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양반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인 양반들 중에서도 정신이 건전한 사람들은 양반의 특권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시인합니다. 이러한 양반제도가 계속되는 한 조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질적인 신분 차별은 쉽게 시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높은 벼슬에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재능과 인격만 평가하여 등용한다면 양반제도는 강제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저절로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1857. 9. 15)

최양업 신부는 조선 사회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그의 능력과 덕성으로 평가한다면 양반제도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최양업 신부의 이 편지 한 대목만을 보아도 그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慧眼)과 평등한 사회로의 지향을 갖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가문이나 학연에 매이지 않고 각자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최양업(5): 가난하고 소외된 교우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제 최양업 토마스

지닌 능력과 실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한다면 양반제도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양업 신부의 편지에는 양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들어온 교우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조 씨라는 지체 높은 양반은 천주교에 대해서 지극히 사악하고 반란을 선동하는 종교로 알고 있었다. 그는 ‘멍에목’이라는 산골 근처에 농사를 지으며 살 집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멩에목 교우촌에 불이 나는 바람에 마을이 다 타 버렸다. 그런데 조 씨가 보기에 그곳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근심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였고, 그들이 천주교 신자임을 알게 되었다. 조 씨는 천주교를 믿기로 하고, 집안을 정리하려 갔는데, 조상들의 위패와 양반 가문이라는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식구들을 분산시키고, 우연히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꾸며서 집과 우상

들을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어 버렸다. 최양업은 조 씨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의 상황을 편지에 전하고 있다. “제가 그 교우촌에 가서 조 씨에게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였으나 개종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고, 특히 이방인들을 가르친 뛰어난 스승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온 집안과 친지들 중에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십시오’하고 책임지었습니다.”(1851. 10. 15 편지) 그러자 조 씨는 동생에게 전교하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동생은 조 씨에게 천주교를 버리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단식하며 협박하였다. 조 씨는 할 수 없이 ‘멍에목’ 공소에 다니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조 씨의 동생은 형을 입교시킨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결국에는 신자들이 그 공소집을 털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 교우촌은 파괴되고 말았다. 지체 높은 양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신자가 된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었으나, 결국 ‘멍에목’ 교우촌은 파괴당하는 비극을 맞

았다. 이처럼 양반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선 사회였다.

또 하나의 사례는 최고 양반 출신인 김 베드로의 일화이다. 최고 양반 가문의 삼형제 중 둘째였던 김 베드로는 24세까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토속 신앙 등 모든 종교를 믿어보다가 마침내 천주교를 만났다. 그는 교우촌의 친구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열심히 기도문을 암송하였고, 자신의 친구, 우상, 가문의 특권을 모두 끊어버

렸다. 모친의 반대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은 홀로 천주교를 믿겠다고 선언하며, 위패와 미신적인 물건을 불살라 버리고 시골로 이사오게 되었다. 그렇게 김 베드로는 부자 양반집에서 가난뱅이가 되었고, 교만한 양반에서 비참한 시골뜨기로 변했다(1858. 10. 3. 편지). 이렇게 볼 때 최양업 신부는 양반 관료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던 평민들의 편에 서서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목자였다. 📌

묵상

최양업 신부가 교우들에게 성무활동을 하며 지향한 덕목이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자신의 특권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일이 있는가?

##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 하느님 섭리에 따른 사랑의 실천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1. 들어가는 말

이 서간은 신약성경의 한 권으로 콜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로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1,1)

사도 바오로는 디모테오를 ‘형제’로, 필레몬은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스는 주인인 필레몬을 떠났습니다. ‘오네시모스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사도 바오로의 이 편지를 가지고 필레몬에게 돌아갔다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1,10). 필레몬서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등과 함께 4대 ‘옥중서간’으로 불립니다(1,23).

### 2. 필레몬은 누구인가요?

필레몬은 에페소에서 사도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인물로 추측됩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내놓을 정도로 부유했고, 콜로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1,2) 이처럼 필레몬의 집에서 신자 모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필레몬은 사도 바오로와는 사목자와 신자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아주 절친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필레몬에게 급하게 사도 바오로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필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스라는 종이었습니다.

필레몬은 사도 바오로가 편지에서 언급하는대로 성실하고 열심한 신자였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1,4-5)

### 3. 사도 바오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

사도 바오로의 이 서간은 감옥에서 만난 노예 오네시모스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이자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노예도 자유인도,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필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스가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1,18)”라는 대목을 보면 아마도 돈을 훔친 후 도망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네시모가 필레몬을 떠난 후 사도 바오로와 만나게 된 경위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스가 사도 바오로를 만난 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여 화해할 것을 목적으로 이 편지와 함께 필레몬에게 보냈습니다.

### 4. 오네시모스를 위하여 간구하다 (1장 8절-20절)

사도 바오로는 오네시모스를 위해 특별히 부탁하게 된 상황과 그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필레몬의 사랑과 인자로움에 기대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오네시모스에 대한 애정과 함께 오네시모스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네시모스가 이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사도 바오로와 필레몬에게 ‘유익’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바오로가 오네시모스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유익하다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필레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 대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스의 노예 처지에 대해, 바오로는 오네시모스가 필레몬에게 자유인으로서, 특히 사랑받는 형제로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의 로마법으로는 도망친 노예에 대한 주인의 처벌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려하여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스를 용서, 화해, 우애로 받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이유로든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서로 이어주고 부드럽게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여전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5. 결론

필레몬은 아마도 사도 바오로의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오네시모스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필레몬은 무조건적으로 사도 바오로의 말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필레몬은 단순히 사도 바오로의 부탁으로 겉으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네시모스를 용서했습니다. 것처럼 필레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다시 용서를 청하러 돌아온 오네시모스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필레몬은 애정이 많고 다정 다감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필레몬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마태 18,22)을 그대로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 자비의 가장 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배반한 이를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에 대한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필레몬은 자신도 죄인임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필레몬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한 하느님을 가장 잘 닮아 가는 것입니다. ❶



성경읽기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써 봅시다

인사

- 1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이 된 나 바오로와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 사랑하는 우리의 협력자 필레몬에게,
- 2 그리고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인사합니다.
-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

- 4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5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 6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는 모든 선을 깨달아, 그대가 더욱 활발히 믿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빕니다.
- 7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스에 대한 부탁

- 8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 9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 10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 11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12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 성경읽기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써 봅시다

- 13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종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 14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15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 16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어 주십시오.
- 18 그가 그대에게 손실을 입혔거나 빛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
- 19 나 바오로가 이 말을 직접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빛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20 그렇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 21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 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 22 아울러 나를 위하여 손님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 끝 인사**
- 23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파프라스,
- 24 나의 협력자들인 마르코와 아리스타르코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사도 바오로가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보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1절)
- ② 오네시모스가 필레몬에게 빚진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18절)
- ③ 바오로가 필레몬에게도 쓸모있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12절)
- ④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 )과 ( )를 받았습니다. 그대 덕분에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7절)
- 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 )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 )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
- ⑥ 사도 바오로는 오네시모스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10절)
- ⑦ 사도 바오로는 누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까? (7절)
- ⑧ 필레몬에게 보낸 서신은 바오로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서신인가요?
- ⑨ ( )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 )까지 된 몸입니다. (9절)
- ⑩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 )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어 주십시오. (17절)

## 식사 대용 간식으로 신심행위?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바쁜 일상 때문인지 다이어트 때문인지 생각보다 주변에 세끼 ‘식사’를 잘 챙겨서 먹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거나 식사 대용 간식을 찾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아 보이는’ 간식이 건강한 식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식사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들 때문에 간식으로 허기를 채우다가 자칫 건강을 해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사 생활을 식사로 보고 그 외에 다른 신심 행위를 간식에 비유해본다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한 성사 생활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심 행위를 위한 기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전례헌장 12항 참조) 우선적으로는 전례를 바탕으로 힘을 얻지만, 신심 행위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의 자양분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오늘날의 신심 행위로는 성체현시와 성시간, 십자가의 길과 로사리오 기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례 행위와 신심 행위 사이에 우위는 분명히 전례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와의 관계에서 신심 행위에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심 행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전례 거

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전례헌장 7항 참조) 따라서 전례 행위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사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 필수적이지만, 다른 신심의 표현들은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심의 표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신심 행위는 항상 말씀과 연관되어야 하고 복음 정신에 근거해야 합니다. 신심 행위와 실천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정화하는 임무는 복음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 신비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심행위는 전례와 구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심 행위 나름의 고유한 양식과 언어를 보존하면서도, 전례 행위와 뒤섞이지 않도록 주일과 대축일, 전례 시기와 전례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전례보다 인기 있었던 대중 신심

사실 초세기에는 전례 행위와 신심 행위들이 서로 혼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순교자들을 위한 공경이라든가 성인들의 공경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세로 오면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중 신심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라틴어를 사용하던 문화권에서는 라틴어 전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각 나라가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여전히 라틴어로 거행되는 전례에 신자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례는 갈수록 성직자와 평신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성직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갔고, 신자들은 전례의 구조와 상징적인 언어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모국어로 거행되는 신심 행위는 점차 호감을 얻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와 삽화들이 담긴 외경 문학이 보급되면서 신자들의 흥미를 끄는 신심 행위들이 늘어났고, 그런 대중 신심은 대중적인 형식과 구조들의 풍부한 표현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례와 대중 신심 사이에 조금씩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 불균형의 원인들과 위험성

중세 이후의 발전을 통해 자리를 잡게 된 대중 신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사람들은, 전례는 본질적으로 생기가 없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전례가 신자 구성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신자들의 언어와 문화 수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각자의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중 신심은 각자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각 신자에게 두루 영향을 끼친다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전례에 지루함을 느끼는 현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전례가 실현하는 파스카 신비와 그것이 구원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부족함이 전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보다 오히려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대중 신심만 장려될 경우,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부추길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 전례의 우위성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편으로 대중 신심이 어느 정도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뒷받침하였고 놀라운 영적 열매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례현장을 통해서 전례의 확실한 우위성을 선언하며 전례와 대중 신심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합니다.

“그리스도교 백성의 신심 행위는 교회의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는 한 적극 장려되며, 특히 사도좌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때에 그러하다. [...] 그러나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러한 신심 행위를 훨씬 앞서가는 것이므로, 전례 시기를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들은 어느 모로든 전례에서 이끌어 내고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 들여 전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전례헌장 13항)

### 신심 행위와 전례의 조화

이렇게 정립된 우위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전례는 신심 행위와 조화를 이룹니다. 대중 신심의 원천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성령이며, 중심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입니다. 이는 전례의 그것과 같은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영성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심 행위의 여러 형태들을 접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례의 우선성을 자각하고 무엇보다 전례로부터 영적인 신앙의 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천하고 참여하는 대중 신심을 통한 여러 신심 행위들이 우리 신앙 생활 안에서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 각자의 여정 안에서 전례와 더불어 더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에프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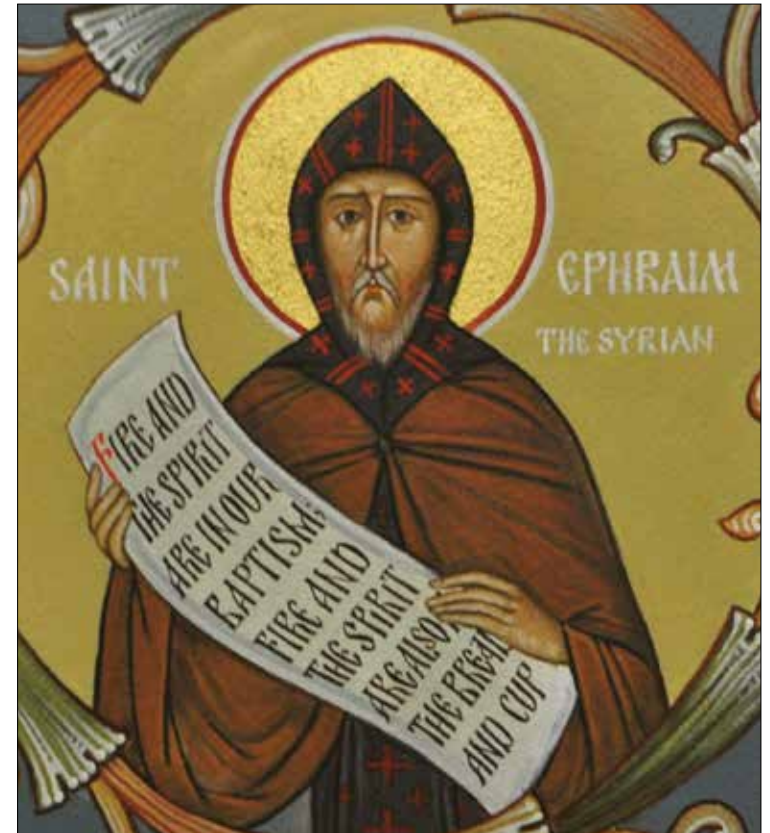
St. Ephrem (축일: 6월 9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기념하며, 미래를 도모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의 교훈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온갖 이단들과 분열주의자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그들의 공로를 기념하며,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역사적 지향점을 도모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실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교회사와 그 속의 인물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이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시리아 에데사(Edessa)의 성 에프렘(Ephrem) 부제입니다. 이분의 삶과 업적을 보면 하느님께서 왜 그에게 ‘에프렘’이라는 이름을 선물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에프렘이라는 이름은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한명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 주셨구나”라고 요셉이 감탄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Ephraim)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פְּרִימָא (에프라임)이라고 하며, 그 뜻은 ‘fruitful’(생산적인, 유익한, 다산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섭리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의 삶에서 드러난 이름과 연관된 하느님의 섭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에프렘 성인은 기원후 306년 현재 터키의 누사이빈(Nusaybin)의 전신인 니시비스(Nisibis)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닐(Abnil)이라는 이방신의 사제였는데, 성인이 18세가 되던 해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고, 이를 알게 된 부모 모두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주교인 야고보의 문하생이 되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

다. 니시비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치하에 들어 갔을 때에 부제로 서품이 되었고, 에데사(Edessa, 그리스의 작은 마을도시, 현재는 터키의 우르파Urfa에 해당)로 건너가서 거기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금욕주의와 고행을 통하여 일종의 수도생활을 하였고, 설교직무를 결코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리아 교회에서 성음악, 성서주석, 호교론, 시 등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성령의 하프’, ‘동정녀의 시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으며, 마리아의 원죄 없으심을 특은으로 강조하며, 마리아에 대한 찬가를 여인의 목소리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에 직면하여 싸우기도 하였고, 영지주의와도 대면하여 싸웠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글들을 시리아어로 저술하였고, 그의 글들이 그리스어, 아르메니아어, 라틴어로 번역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교품을 받는 것을 사양할 정도로 평생 겸손하게 살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데 열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열매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완덕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신앙의 스승이요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마태 7,16-17)라는 복음말씀이 육화된 모범을 성 에프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성인은 시리아어를 쓰는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더 탁월한 인물로 대표되었습니다.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신학자로서의 소명과 시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조화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성 에프렘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귀중한 작품은 다음의

네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산문집, 산문시편집, 강론집과 찬가들. 성인은 아주 다방면에서 풍성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드신 작가입니다. 그분 작품의 특수성은 바로 신학과 시를 서로 만나게 하신 업적에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질문에 매달려야 합니다. '성인은 시의 형식으로 신학을 하셨다.' 시는 성인에게 있어 시가 가진 역설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신학적 묵상을 심화시키도록 해 줍니다. 동시에 그분의 신학은 전례가 되기도 하며,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은 사실 가장 위대한 작곡가였으며, 음악가였습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

## 기도 학교

### 염경기도

차동욱 시몬 신부\_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이번 시간에는 염경기도와 염경기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바치는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 기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바치는 형태 또는 방법으로 구분하면 염경기도와 묵상기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염경(念經)은 ‘생각 념’에 ‘글 경’자를 쓰는 한자말에서 나온 것이고, 묵상(默想)은 ‘잠잠할 묵’, ‘생각 상’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갑니다. 둘 다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염경 기도는 이미 정해진 글을 중심으로 입으로 소리 내어 하는 기도이고, 묵상기도는 뜻 그대로 잠잠히 머무르며 생각 속에 하는 기도입니다.

염경기도는 이렇게 글로 쓰인 기도나 혹은 지어서 하는 기도를 외적인 말로서 표현하는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 쓰인 기도이고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이지만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감정을 담아야 하는 것은 신실한 기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교회 교리서(2704항)는 아무리 높은 성덕에 도달한 사람이라도 소리기도의 형태는 없어질 수 없는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깊은 경지의 묵상, 관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지라도 일상에서 직접 소리를 내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거나 외어 바치는 기도를 염경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기도’, ‘성모송’ 등이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서의 여러 가지 기도문이나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등이 이 염경기도에 속합니다. 우리가 자주 바치는 기도 중에서 이 두 기도에 대해 특별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묵주기도와 십자가의 길 모두 소리 내어 바치는 염경기도로서 분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묵상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묵주기도의 한자말인 묵주(默珠)라는 말에도 ‘침묵 묵’자가 들어갑니다. 성모님께 의탁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인 묵주기도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관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역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통의 길에 담긴 하느님과 당신의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소리 내어 바치는 이 기도 속에 묵상이 포함된 깊은 신심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먼저 **묵주기도**에 대한 이해는 성모신심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신부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성모 마리아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모님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끝까지 함께하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자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며 가장 먼저 믿으신 최초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모든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마리아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중개자(仲介者)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仲裁者)이신 그리스도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종속적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깊이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의 생애에서만 구원활동에 협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당신의 그 특별한 은총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천상에서도 여전히 협력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어머니 마리아의 이런 모성적 도움을 받는다고 믿고 있기에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묵주기도의 내용은 **복음 전체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행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모송의 연속적인 기도로서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로사리오라고도 부르는 묵주기도는 라틴어 로사리움(rosarium)과 같은 말입니다. 로사리움은 ‘장미’라는 말과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장미꽃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장미 꽃다발을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박해사건이 묵주기도와 장미가 연결되어 나타난 기원이 됩니다. 순교자 시대 당시 신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머리에 장미꽃으로 엮은 관을 쓰면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예의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돌아가신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게 될 때는 당연히 그들이 썼던 장미꽃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고 나머지 신자들이 몰래 그 꽃송이를 보며 순교자

를 기려 성모님께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작은 오늘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여러 시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집트의 은수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종종 시편을 외웠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그 수만큼 바치곤 하였습니다. 시편 150편의 개수만큼 작은 돌이나 곡식으로 그 수를 세다가 결국 열매나 구슬 150개를 줄에 꿰어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형태가 11세기까지 이어지면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섞어 바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모님의 일곱 가지 기쁨을 일컫는 ‘성모 칠락’이라든가,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을 말하는 ‘성모 칠고’ 등의 기도도 함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형태에 가장 유사한 모습의 묵주기도는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15세기에 묵주기도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분류하면서 부터입니다. 여기에 17세기 이후에 다시 영광송이 첨가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에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묵주기도에 그리스도의 공생활중의 사건들을 묵상하도록 하는 ‘빛의 신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빛의 신비까지 포함된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강생과 복음 선포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기도이자 어머니 마리아께서 모든 신자들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하느님 앞에 선 어린 아이같이 말도 잘못하며 무엇을 청할지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으로 감싸 올리는 기도라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수난 여정을 함께하는 기도이므로 역시 깊은 묵상이 함께 필요한 영경기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지만 오직 우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걸으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깊이 따라가는 기도가 ‘십자가의 길’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는 예수님 무덤 자리로 밝혀진 곳에 성당이 세워진 때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연히 이 무덤 성당을 찾아와 기도하기 시작했고, 중세 때에 이곳은 특별히 참회하는 고행자들의 순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제들이 중죄를 지은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지순례, 특히 예수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을 직접 순례하도록 하는 보속을 준 영향도 있습니다. 순례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 무덤 성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그 수난과 죽음의 대속을 얻게 된 죄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은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가 중세기였다는 것입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보통 사람들은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돈과 지위, 건강 등 모두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성지순례와 그로 인해 얻어지는 전대사는 공평치 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도회들을 비롯해서 교회 단체들은 유럽 여러 도시 안에 직접 예수님 무덤 성당을 본뜬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 조각이나 그림 등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관련된 장소들을 표시했지요.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성당에 가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은총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살지 않는 지방의 가난한 농부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프란치스코회 수도회가 각 성당마다 예수님 수난의 길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당 안에 나무 십자가로 수난과 관련된 장소를 표시하여 기도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도회의 노력은 나아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이들이 전대사(全大赦)를 얻을 수 있도록 교황청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못해도, 또 큰 도시에 가서 순례하지 못해도, 가까운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그 옛날 예루살렘 무덤 성당에서 기도하며 얻었던 은총을 함께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십자가의 길’을 오늘날처럼 14처로 고정하면서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얻어 합당한 방법으로 세운 14처가 있는 성당이나 경당, 순례지 등지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주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동안 당신 마음에 누가 있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 속에 간직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이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는 가장 많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는 일이 그렇게 고통일 수 있어도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서 더욱 절실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



##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9

## 존엄한 생의 말기와 적절한 돌봄 1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 의학의 발전과 생의 말기를 둘러싼 논란

의학의 발전이 가져온 가장 큰 혜택은 무엇보다 인간의 수명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예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많은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학의 역량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의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의 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병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생의 말기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발전된 의학의 생명 연장 기술은 인간 생명의 인위적인 연장과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있으며 때때로 환자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을 가보게 되면, 수많은 기계에 묶여 꼼짝도 못한 채 지내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때때로 나의 모습이 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었고, 소위 '존엄사'나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김할머니 사건과 연명의료 중단 문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에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김

할머니 사건은 식물 상태에 빠진 70대 여성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중단해 달라는 자녀들의 요구를 병원측에서 거부하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생전에 그러한 인위적인 생명 연장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공호흡기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인 논란으로 발전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면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2009.5.21.)

법원의 판단은 환자가 이미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다면 인위적인 생명 연장이 오히려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연명 의료의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의 요청대로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중단이 되었지만, 김할머니는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김할머니 사건은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그동안 생의 말기와 관련되어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조명되기 시작했

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2016년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자기 결정권

대법원의 판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자기 결정권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는 나중에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임종과정’이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법은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나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임종과정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즉,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sup>❶</sup>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지성과 자유를 가진 인격체이기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생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자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자유는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치료 수단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존엄사와 의사 조력자살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의학적 돌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생의 말기를 보내는 환자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기 환자의 생명의 존엄성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존엄한 죽음’ 혹은 ‘존엄사’라는 표현이 그러한 오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표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사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미국 오레건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와 관련이 있는데, 이 법은 극심한 말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존엄사는 다름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존엄사의 개념에는 질병으로 쇠약해진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존엄성이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지닌 존엄성은 내적인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가능한 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❷

❶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 호모 마스크스 (Homo Maskus, 마스크를 쓴 인간)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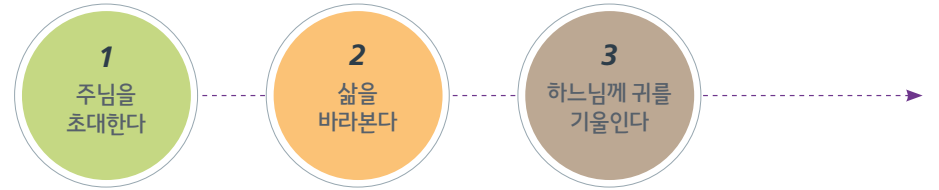
### 2. 삶을 바라본다.

얼마 전 상가 조문차 장례식장을 갔다가 5년여 만에 아는 신부님을 보았다.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을 반쪽 밖에 못 보네요”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어떻게 금방 알아보셨을까?’ 생각하면서도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혹자는 지금을 ‘호모 마스크스(Homo Maskus, 마스크를 쓴 인간)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신기한 점은 마스크로 얼굴의 60~70%를 가리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멀리서든 가까이에서든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

한편, 어느 부류는 전혀 낯선 사람처럼 모른척 지나치기도 한다. 가려진 얼굴로 남들이 자신을 몰라볼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마치 마스크 쓴 투명인간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

그 가운데에도 친절한 호모 마스크스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금방 표가 난다. 마스크 쓴 익명성에 숨어들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와 지하철 승하차 때 양보하는 모습, 문을 여닫을 때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모습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마스크 착용과 관계없이 바로 드러난다.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인지 모르겠다.



### Question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일상의 에피소드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요한 복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당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 (로마 5,5)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첫째 은혜는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좋은 씨앗처럼 영혼 안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신자가 각기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하느님의 뜻을 행동으로 채워드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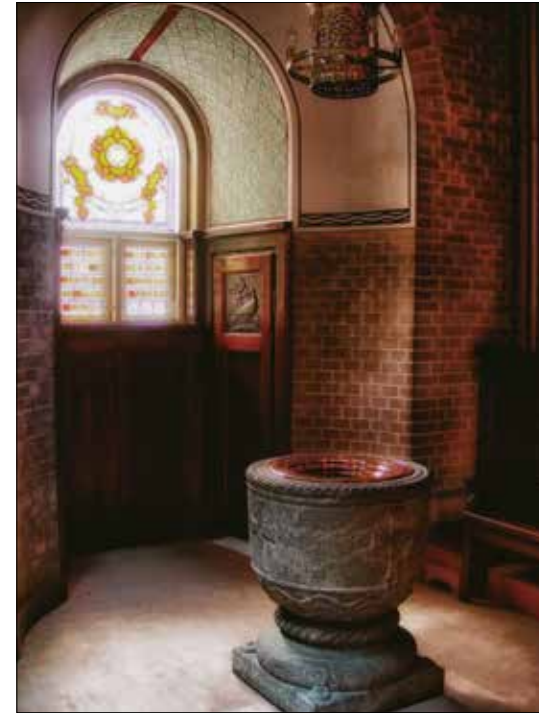
완덕의 끈이며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골로 3,14: 로마 13,10) 모든 성화 수단을 이끌고 가르쳐 그 목표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시가 난다.

[교회헌장 42항 성화의 수단과 방법 중]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Cornerstone



성수 (라틴어: aqua benedicta, 영어:holy water)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물은 자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의 하나이고 종교적 정화(淨化)의 상징으로 그리스도교 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집트의 고대 종교 등에서도 제단에 오르기 전에 몸을 씻는데, 부정(不淨)을 씻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성수는 전례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조금 넣어 사제가 축성한 거룩하고 깨끗한 물을 말한다. 이는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죄스런 악마 등을 쫓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어 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성수의 사용은 구약시대부터 유래되어(출애 30,18-21), 2세기에 이미 집을 축성하기 위해 성수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신체적인 위험과 유혹의 순간에 악령(惡靈)의 힘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성수를 사용한다.

현재의 소금물 성수는 알렉산데르 1세 교황이 도입했다고 한다. 성수와 같이 ‘지혜의 소금(Sal Sapientia, 살 사피엔시아)’을 축성한 정제 소금으로 제공한다. 고대 히브리인과 현대 유대인에게 소금은 하느님과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계약을 나타낸다. 소금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돌이며,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물에 녹아서 사라져도 증발시키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불멸성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민수 18,19)*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기 전에 반드시 성당 입구에 놓인 성수반(聖水盤)에 채워진 성수를 손에 찍어 성호를 긋고 마음 속으로 성수기도를 바치고 들어간다. 옛날에는 주일미사 전에, 사제가 큰 성수채로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리는 성수예절을 거행했었다.

성수예식(Sprinkling)은 주일 주요 미사에서 거행하는 보통 예절인데 시작 예식 때 신자, 사제, 제대 위에 성수를 뿌린다. 전에는 성수를 뿌리는 동안 부르던 후렴의 라틴어 첫 단어를 따라 성수 예식을 ‘아스페르제스(Asperges)’라고 불렀다. 주일에 성수를 뿌릴 때에는 참회 예식을 생략한다. 성수 예식은 신자들에게 세례성사와 내적인 영적 정화를 상기시켜 성체성사 거행을 준비시킨다. 병자성사, 교회 축성, 집이나 다른 세속 사물을 축복할 때에도 유사한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므로 성수 예식은 정화와 치유를 통해 신자들이 하여금 영세 때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새로운 탄생을 상징한다. 세례를 되새기고 은총을 갱신하는 이런 관점은 부활 성야 때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부활 성야 때 신자들은 세례 때의 서약을 갱신한 뒤에 성수를 받는다.

고전 음악을 듣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아마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D839)만큼 일반인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곡도 드물 것이다. 사람들은 낭만적 미를 동경하기에 비록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슈베르트가 가난하고 역경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슈베르트 스스로 선택한 낭만적 삶이라고 생각하며 슈베르트를 동경한다. 필자는 슈베르트의 팬 중에는 슈베르트의 전매특허인 동그란 안경을 쓰고 초상화에 나오는 비슷한 옷까지 입은 사람도 보았다. 모든 아베 마리아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선율과 음악적 아름다움의 극치로 대중성까지도 휘어잡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슈베르트 가곡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순위에 있지만, 이번 호에서는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가곡의 이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설명했듯 슈베르트는 영육의 질병 속에 고단한 31년의 삶을 살았지만, 또한 시대적으로도 슈베르트는 이른바 ‘비더마이어’라고 불리는 암흑의 시대를 살았다. 1815년 오스트리아의 수상 메테르니히의 주도로 열린 빈 회의는 프랑스 혁명 체제를 마감시키고 왕정과 귀족계급의 구질서를 복원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나폴레옹 전쟁으로 사라졌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면서 황제 프란츠 1세는 당근정책의 시의적절한 사용으로 빈 시민들을 무기력하게 밀어 넣어 그저 일상의 작은 평화만을 주고 동시에 비밀경찰 체계를 강화하여 구질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탄압하였다. 이른바 ‘비더마이어’ 시대의 시작이었다. 음악사에서 본래 낭만주의는 정신적·예술적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당시의 현실은 낭만주의조차 내면화로 치닫게 하였다. 지난 호에 언급한 ‘슈베

Franz Schubert: Ellens Gesang III ("Ave Maria"),  
song for voice & piano, D. 839 (Op. 52/6)

Carolyn Sampson: A Soprano'S Schubertiade  
Performer: Joseph Middleton/ Carolyn Sampson  
Catalogue Number: Bis-2343 Sacd  
Ean: 7318599923437  
Format: Sacd Hybrid  
Release Date: Apr 2018  
Total Time: 77'32



르티아데’도 사실은 비더마이어 시대의 전형적인 가정 음악회의 모습이였다. 황립기숙학교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슈베르트와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일부는 역행하기도 하여 함께 비밀경찰에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슈베르트의 가곡에서도 곳곳에 검열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저항의 구절이 간간히 엿보인다. 슈베르트의 음악은 그 자체도 낭만적 서정을 황홀할 정도로 품고 있다가도 냉혹한 현실에 맞부딪치는 순간 절망과 불안으로 끝을 내는 데는 그런 배경이 짙게 깔려있다. 희망의 상실이 존재의 부정에 이르는 듯한 슈베르트의 음악은 어쩌면 그래서 더 현대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는지 모른다.

이러한 비더마이어 시대 지식인의 좌절감은 당시 정치권력과 유착한 세속적인 교회까지 실망하게 되는데, 역시 슈베르트도 그러하였다. 1823년 5월 8일 쓴 슈베르트의 자작시 ‘나의 기도’를 보면, 매독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을 “레테강에 던져”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을 통해, 자신의 몰락이 “순결하고 강인한 삶”으로 치환되길 바라고 있다. 슈베르트의 이 기도에서 기독교

가 신성시하는 요단강을 놔두고 왜 그리스 신화의 레테강(저승세계의 강으로 '망각의 강'의 의미가 있음)을 끌어왔는지 그의 종교적 저항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여행 중의 슈베르트의 편지와 메모를 보면, 1825년 잘츠부르크에서 '뤼크 고개(Lueg Pass)'를 넘다가 교회의 이름으로 고개에 세워진 전승기념비를 보면서 뤼크 대량학살의 전쟁범죄를 자국의 승리로 추념하는 교회의 세속성에 대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알프스의 뤼크 고개의 학살 사건은 1809년 당시 티롤, 인스부르크, 잘츠부르크를 지배하던 바이에른 공국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사건이었다. 슈베르트는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가톨릭으로 세례를 받고 성장하여 리히텐탈(태어난 곳) 성당과 궁정예배당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였기에, 슈베르트는 여섯 곡의 라틴어 미사곡과 한 곡의 독일어 미사곡(초기의 습작 두 곡도 포함시키면 모두 9곡)을 작곡하였지만, 여기에도 그의 신앙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다. 당시의 교회당국은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란츠 2세의 개혁을 거치며, 어느 정도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여 작곡가들이 음악적 필요에 따라 성서문구나 미사문구를 각색하고 조정하더라도 눈감아주는 편이었다. 슈베르트의 모든 미사곡 그 어디에도 사도 신경(Credo) 파트에 나와야 할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et unam sanctam catholicam et apostolicam ecclesiam)'라는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슈베르트가 의도적으로 평생 이 구절에 음악을 붙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로 인해 1825년 슈베르트가 지원했던 궁정예배당의 부악장 자리에 불합격하는 댓가까지 치루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기숙학교 재학시절부터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존재를 목적론적으로 설명한 클롭슈토크(Klopstock)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다. 설사 종교의 색채가 없는 곡에서조차 그 배경은 신의 존재이다. 슈베르트의 '방랑자(뤼베크의 시에 붙은 가곡)'(D493)를 보면,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존재를 믿을수록 낮설어지지만 하는 자의식이 드러난다. 슈베르트의 방랑의 대명사가 된 '방랑자'는 '방랑자 환상곡'(D760)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피아노곡으로도

Franz Schubert: Der Wanderer ("Ich Komme Vom Gebirge Her"),  
Song For Voice & Piano (Two Versions, D. 489b/C), D. 493 (Op. 4/1)

Schubert: Lieder  
Performer: Dietrich Fischer-Dieskau / Gerald Moore  
Release Date: May 3, 2010  
Cd Add 477 898-9 Gb 21  
Label: Deutsche Grammophon (Dg)  
Upc 00028947789895



재생된다. 전형적인 종교곡 '서있는 어머니(Stabat Mater) F장조'(D383)에도 전통적인 기도문 대신 클롭슈토크의 시를 사용하였다. 그는 교회의 강요된 신앙심보다는 조물주의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이해하는 편을 택하였다. 그의 형 페르디난트는 언제나 교회활동에 열심이었고 빈에서 교회음악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슈베르트는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일기(특히 1824년 3월 28일자)에는 늘 전능한 하느님에 대한 신심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완전하게 분리된 현재의 시점으로만 보아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회의적인 종교관을 가진 불안정한 신자로 파악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들은 나폴레옹과 함께 유행한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계몽주의적 가톨릭 신자였다.

슈베르트의 종교음악은 6편의 미사곡 이외에도 41개의 가곡이 있다. 슈베르트가 기숙학교 시절이었던 1812년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서 탄생된 곡은 모두 성모 마리아의 모성을 기리고 있는데, 마리아(D371), 하갈의 청원(D623), 위안을 주시는 마리아(D632)가 있다. 독일어를 사용한 슈베르트의 독일미사(D621)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브람스의 독일진혼곡에 앞서 라

틴어 전례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작곡한 선구적인 작품이다. 슈베르트는 미사의 독일어 번역을 허용하지 않는 당국에 대하여 황제청원을 넣어 간신히 작곡하였다. ‘가톨릭 성가집’에도 329번부터 336번까지 전곡이 실려 있을 정도로 우아하고 부르기도 쉽다. 1827년 죽기 한 해 전 완성되었는데, 교구청에서는 연주는 허용하였지만 미사시간에 부르지는 못하게 하였다. 100년이 지난 1928년 오스트리아 주교회의는 공식적으로 이 작품을 미사 때 연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슈베르트는 종교가곡과 미사곡 외에 다양한 장르로서 칸타타도 작곡하였다. 1820년에 작곡한 ‘라자로: 부활의 축제(D689)’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를 섞어 오페라적 기법을 보여주는 오라토리오이다. 슈베르트의 생애 마지막 해인 1828년에는 전 호에서 소개한 대작 이외에도 종교음악이 다수 작곡되었다. 그 해 7월에 히브리어가사에 붙인 89마디의 ‘시편 제92편’(D953)(빈의 유다교 교회의 의뢰), 9월에 ‘믿음, 희망과 사랑’(D954)도 있지만, 슈베르트의 마지막 대규모 종교음악은 ‘미사 Eb장조’(D950)이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연주하는 커녕 리허설로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헨델의 오라토리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곡은 숙련된 합창단이 철저한 사전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곡이지만, 이는 그의 마지막 해의 종교적 진지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슈베르트의 종교곡은 독일미사에서 보듯 미사에서조차 소박하고 따듯하다. 그러나 그 가사는 늘 의미심장하였다. 특히 종교가곡을 보면 그 가사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불행한 운명을 극복하거나 죽음의 공포로부터 정신적 구원과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이었다.

이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로 돌아가 보자. ‘아베 마리아’는 별칭에 지나지 않고, 원래는 슈베르트가 스코틀랜드의 시인 월터 스코트(1771-1832)의 연작시 ‘호수의 여인(Lady by Lake)’의 독일어 번역 가사로 작곡

**Franz Schubert:**  
Mass for soloists, chorus & orchestra in E flat major, D. 950

Mackerras conducts Schubert & Mozart  
Recorded in the Frauenkirche in Dresden  
Release Date: 15th Jun 2009  
Catalogue No: CAR83249  
Label: Carus  
Series: Music from Dresden  
Length: 76 minutes



한 연작가곡 중 여섯 번째 곡으로 ‘엘렌의 세 번째 노래(Ellens Gesang III)’(D839, Op.52 Nr.6)가 원 제목이다. 1825년, 슈베르트가 어느 때보다도 병마에 시달리던 해에,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워낸 한 송이의 희망의 꽃이었다. 당시 스코트의 번역시 자체가 많은 젊은이에게 애송되었는데, 슈베르트는 여기에 음악적 아름다움과 종교적 열정을 더하여 당시 널리 애송되는 최고의 노래를 만들었다. 다음 해 1826년, 슈베르트는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호수의 여인을 작곡한 저의 새 노래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성모 마리아 찬미가에 표현한 감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리하게 종교적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순수한 종교적 감정에 따라 단순하고 신성한 곡을 썼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다른 작곡가들의 여러 아베 마리아 중에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유일하게 가톨릭의 공식기도문 성모송에 기초하지 않고 스코트의 서사시에 근거를 둔만큼, 슈베르트는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호수의 여인 여주인공 엘렌 더들라스가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빌어 대신하고 있다. 고난하기만 했던 슈베르트의 정신적·육체적 질병과 시대적 좌절을 생각할 때, 슈베르트의 노래는 마치 진흙탕 물 속에 핀 연꽃과 같다고 할까.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사해와 광야 - 메마른 땅의 아름다움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요르단 강이 끝나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계셨던 유다 광야를 잠시 들렀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고 황무한 광야의 동쪽으로 푸르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가 보입니다. 사해입니다.

사해 - 한자로 죽을 ‘사(死)’ 바다 ‘해(海)’ 자를 씁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뜻인데 예로니모 성인이 이 지역에 오셨다가 높은 염도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 죽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굳어져 ‘Dead Sea’라고 현재까지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한 번도 사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요. 소금바다, 동쪽 바다, 아라바 바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소금 바다, 말 그대로 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중해 바다보다 약 7배 넘게 더 짜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짚어 먹어보면 짜다 못해 씹니다. 동쪽 바다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이 된 것이고 아라바 바다는 아라바

계곡(아카바 만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리아까지 이어지는)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소금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어로 죽은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룻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친척, 룻 맞습니다. 초아르로 추정되는 지역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주장되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심지어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룻의 아내도 이스라엘에 하나, 요르단에 하나씩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역이 발굴되지 않아서 몇 군데 후보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그곳이 ‘사해 인근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해 지역에 가면 유황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그 성읍들이 벌을 받는 창세기의 구절이 생각납니다. 죽은 바다라는 이름에 걸맞지요.

그런데 정말 이 사해에 아무것도 살지 않을

까요?

햇볕이 닿지 않는 바다 밑에도,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낮은 기온에도 살아남는 미생물들이 있듯이 이곳에도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미생물을 먹고 사는 파리도 있습니다. 사해의 파리! 광야에서 목상을 하다가 또는 요르단 강을 순례하다가 꽤나 신경쓰이게 하는 파리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파리가 이 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갈릴래아 호수와 마찬가지로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둘레는 갈릴래아 호수의 약 5배 정도가 되며, 서쪽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동쪽은 요르단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요르단 강과 비슷하지요. 이곳을 공유하고 있는 두 국가의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과 산업이 발달되면서 요르단 강의 물과 갈릴래아 호수의 물을 많이 끌어 쓰다 보니 사해에 유입되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설상가상으로 사해에서 채취되는 많은 미네랄들을 수출하는 산업이 커지다







광야와 사해



사해와 모압산지

보니 사해는 1년에 1미터씩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해수면보다 430미터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어디까지 더 낮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원래 사해는 한 덩어리였는데 점점 물이 줄어들다 보니 지금은 남쪽 사해와 북쪽 사해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 사해가 남쪽보다 더 깊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했다는 진흙이 바닥에 깔려 있는 반면 남쪽은 염도가 더 높고 하얀 소금 결정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꼭 내린 눈이 쌓여있는 것과 같이 예쁩니다. 사해의 소금과 미네랄들이 피부에 좋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이스

라엘과 요르단에 사해에서 머무르며 치료 혹은 관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사해 소금과 진흙으로 만든 화장품도 양국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염도가 높기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크기와 부피에 상관없이 동실동실 잘 뜹니다. 장 담글 때 소금물 염도 맞추려고 계란을 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에 15분정도 사해에 몸을 담구는 것을 권장합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에 반해 사해는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잔잔한 사해 수면위로 비치는 붉은 모압산지 반영은 그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게 합

니다. 곧 있으면 달이 떠오르고 달빛이 비치는 사해 또한 매력적입니다. 가까이 있는 도시 예리코의 뜻은 달의 도시입니다. 달이 지면 다시 해가 뜨는데 일출 또한 장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다른 지역과는 또다른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남쪽 사해, 에인 보케크 (Ein Bokek) 라는 지역에 호텔들이 많이 있고 가격과 등급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 브에르 쉘바 등지에서 사해까지 가는 버스 편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엔 게디(En Gedi)와 마사다(Masada)도 가보실 만한 곳입니다. 이 두 곳

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엔 게디는 다윗왕이 사울왕을 피해 달아난 곳으로 유명하며, 메마른 유다 광야 안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연중무휴 물이 솟아나는 샘과 작은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트레킹을 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항한 항쟁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열혈당원들이 3년을 버티며 항거했지만 로마 10군단에 의해 점령당했는데 960명 모두가 자결로 영원의 자유를 얻었다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중에 가지 않는 지역들인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민족주의



사해부영체험



엔게디



엔게디 폭포



롯의 아내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 두 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엔 게디는 다윗왕 관련 뿐 아니라 구약성서에 많이 언급이 되고 마사다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포라(유대민족의 흩어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에 군인들이 그곳을 등정하여 정신훈련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해와 더불어 이 세 군대를 갈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해는 해수욕장처럼 마련되어있는 곳에서 잠깐 즐기고 갈수도 있지만 하룻밤 정도 머물러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해에 몸을 담그고 나면 사우나에서 땀을 뺀 것처럼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어느 정도 개운함을 얻고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

게 사해를 지나 남쪽으로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온전하지 않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 같아 보입니다.

주요 도시들은 가운데 부분에 분포되어 있고 북쪽에는 나자렛, 갈릴래아 호수, 골란고원이 있는가 하면 남쪽에는 브에르 쉘바, 아라드, 사해,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해 북쪽과 인접해있는, 예리코 맞은편의 광야 지역을 보았는데 이 지역은 유다 광야입니다. 성경에도 광야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 광야, 파란 광야, 신 광야, 시나이 광야 등으로 여러 광야가 나오는

데, 이렇게 구분해야 할 정도로 광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로 설명할 때 지도를 반으로 접고 윗부분을 주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지역이 도시가 거의 없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브에르 쉘바가 마지막 도시인데 여기까지가 밀을 경작할 수 있는 최소량의 비가 내립니다. 그 아래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는 경작이 불가능하고 지하수가 있기는 하지만 염분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든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대로부터 도시나 마을이 많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아브라함, 롯 등 구약성서 인물들이 살았던 곳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브에르 쉘바는 창세기에서 많이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브에르’는 우물이라는 뜻인데, 파는데 마다 물이 나오고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순순히 내어주는 이사악이 떠오릅니다. 북쪽도 좋지만 이스라엘의 “찐매력”은 남쪽에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곳이지만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하느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어제의 세계』(1) - ‘어제의 세계’를 만나러 가는 길

최대환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 세계

이번 여름부터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비범한 회고록 『어제의 세계』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유다계 오스트리아 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1881-1942)는 당대에 가장 널리 읽힌 독일어 저자였다고 전해지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노벨레’ 들인 「체스 이야기」나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같은 좋은 소설 작품도 많습디만, 그를 독일어권과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도 확고하게 유명작가로 만든 것은 흥미진진한 그의 전기물들입니다.

풍부한 지식과 교양, 간결하고 우아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문체, 심오한 심리분석, 대상이 되는 열정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가 쓴 전기 작품들은 다른 전기들과 구분되는 독

창적 매력이 있습니다. 츠바이크의 전기를 읽는 것은 독서의 즐거움과 배움의 보람을 누리며 인간의 운명에 대한 번뜩이는 직관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츠바이크는 자신이 깊은 영향을 받았고, 또한 돈독한 친분을 맺고 있었으며 동시에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겼던 너무나 유명한 사상의 거인이며 정신분석학의 효시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을 전기 문학에서 절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의 전기문학에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인이자 기인의 품모를 가진 사상가와 예술가들을 묘사하는데 츠바이크가 능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니체, 발자크,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과 같은 예술가들에 대한 평전은 일찍부터 고전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전기문학가로서의 탁월한 재능이 빛나는 또 다른 영역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서술입니다. 특히 모순되는 진술들이 난무하고, 종종 선입관과 관성적 이해가 두터운 먼지처럼 덮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기술을 통해 그의 전기문

학은 때때로 유일무이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의 악명높은 여왕이었던 마리아 스튜어트나 프랑스 혁명 때 처형된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전제정과 혁명기를 통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권력을 유지한 비밀경찰 총수 요셉 푸세에 대한 전기들은 기념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행히도 대개 우리말로 번역 되어 있습니다. 『발자크 평전』(푸른숲, 1998),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청미래, 2005). 『니체를 쓰다』 『도스토예프스키를 쓰다』, 『톨스토이를

쓰다』(세창문화사), 『조제프 푸세』(이화북스, 2019), 『슈테판 츠바이크의 메리 스튜어트』(이마고, 2008)).

한편 그의 전기 문학들은 대상 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일뿐더러 츠바이크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극단의 시기에 평화와 관용을 추구한 사려 깊은 인물들인 미셸 드 몽테뉴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에 대한 츠바이크의 애정과 존경은 각별합니다. 츠바이크 역시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양과 섬세



어제의 세계  
원제 Die Welt von gestern / Zweig, Stefan  
지음: 슈테판 츠바이크 / 옮김: 광복록  
출판사: 지식공작소 / 2014년 02월 05일 출간  
154x225mm / 570쪽  
ISBN\_9791130425054(1130425053)

한 지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몽테뉴와 에라스무스가 당대에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폭력과 극단적 대립을 개탄한 것처럼 츠바이크 역시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의 광풍이 가져오는 폭력을 혐오했으며,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평화운동에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츠바이크가 저술한 몽테뉴에 대한 전기인 『위로하는 정신』(유유, 2012)과 에라스무스에 대한 전기인 『에라스무스 평전』(아름미디어, 2003)은 그 자체로서도 감동적인 작품이지만 동시에 저자가 평생 지켜온 삶의 태도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유럽문화의 ‘빛나는 시간’과 ‘어제의 세계’

이처럼 츠바이크는 긴 세월을 거치며 여전히 사랑받는 많은 소설과 전기를 썼지만, 사실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작품은 매우 독특한 방식의 역사서라 할 『광기와 우연의 역사』(휴머니스트, 2020-개정판-)입니다. 우리말 번역 제목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여러 순간들을 인물과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츠바이크의 역사관과 문학적 직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인간사의 빛나는 시간’이라는 뜻의 Sternstunde der Menschheit입니다. 별 같은 시간, 또는 순간으로 번역할 만한, 절묘한 표현 ‘Sternstunde’을 유명하게 한 사람이 바로 작가 자신입니다. 그는 이 표현으로 자신의 고유한 예술관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술가도 내내 예술가로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존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는 없고, ‘아주 드물고도 짧은 영감의 순간’에 위대한 예술적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인류의 역사에도 이러한 예술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역사에 있어, 그리고 각 개인의 개인사에 있어 각별한 의미를 지닌 별 같은 순간들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의 서문의 다음과 같은 대목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역사상의 별 같은 순간은 이후 수십 수백 년의 역사를 결정한다. 전 대기권의 전기가 피뢰침 꼭대기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시간의 뾰족한 꼭짓점 하나에 집약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될 중대한

결정이 어느 한 날짜 혹은 어느 한 시각으로 모아지는, 그토록 극적으로 응축된 운명적인 사건이란 개인의 삶에서도 드문 일이고 역사의 흐름에서도 드문 일이다. 여러 시대와 다양한 영역들에서 뽑아낸 몇 개의 별 같은 순간들을 -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그러한 순간들이 별처럼 빛나면서 지나가 버린 일들 위에서 변함없이 빛나고 있으니까 말이다. - 나는 여기서 기억해 보고자 한다.”

『광기와 우연의 역사』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1927년에, 중년의 나이이자 문학적 절정기에 쓴 책입니다. 그에게는 작가로서의 영광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연과 덧없음이 점철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숭고함과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유럽문화에 대한 깊은 신뢰가 표현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그의 유작인 『어제의 세계』는 역시 자신의 모태와도 같았던 유럽 문화에 대한 기억이고 회상이지만, 비통함의 책임입니다. 작가가 체념과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기울여 남긴 고별사와 같은 이 책은 그가 생전에 만나지 못한 미래의 독자들에게는 유럽의 ‘좋은 시대’를 생생한 전해주는 각별한 기록이자, 역사의 무거운 교훈과 만나게 하는 직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유럽통합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가가 비로소 드러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우리말 번역본 역시 500쪽을 훨씬 넘는 두툼한 책이지만, 번역된 이래 많은 독자들 사이에서 소리없이 그리고 꾸준하게 사랑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 이 작품을 그리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티나씨의 티비보기

## 아카이빙 TV, 과거의 재발견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어린 자녀와 부모의 갈등 해결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즐겨 보다가, 상담역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멘트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았다. 고연령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문화 소비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다국적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젊은이들이 애청한다는 것이다.

설마 하다가 시청 소감들을 검색해 보니, “육아하느라 시간이 없어도 아이를 재우고 본다”는 표적 시청자들뿐 아니라 “결혼은 안했지만...”으로 운을 떼는 잠재적 예비 부모들도 드물지 않았다. 자녀 교육이나 다른 목적으로 TV를 없앴어도 이 프로그램은 챙겨 본다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청 방식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생활에 회의적인 세대라고 해서 가정생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회의란 좌절된 기대의 산물이고, 회의를 품다 보면 다른 길이 있는지 모색하기 마련 아닌가.

오은영 박사의 가정상담에 대한 신뢰는 장기간 연재된 신문 칼럼과 저서의 인기를 통해 공고해졌고, 이는 TV 프로그램 기획으로 이어져 ‘육아 박사 오은영 현상’이라 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현상의 시작은 2006년부터 9년간 공중파 채널에서 방송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였다. MC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담은 관찰카메라를 보며 소감을 말하고, 오 박사가 아동과 부모에게 각기 알맞은 행동교정을 해주는 식이었다. ‘금쪽같은 내 새끼’와 비교하면 인적 구성이 더 단순하고, 등장하는 아이들도 더 어렸다.

2015년에 종영된 ‘달라졌어요’와 2020년에 시작된 ‘금쪽같은 내 새끼’ 사이에는 2016년부터 월 2회 일간지에 연재 중인 ‘오은영의 화해’ 칼럼이 있다. 성인 내담자들의 사연의 배후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해진 상처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와 관련이 있고 아이들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금쪽같은 내 새끼’는 ‘달라졌어요’의 한계 위에서 ‘화해’ 칼럼의 확장성을 활용하고 있다. 출연하는 자녀들의 연령을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였고, ‘금쪽이’라는 별명과 AI 스피커 상담으로 익명성과 진솔한 고백의 환경을 만들었다. 4명으로 확장된 연예인 MC들도 자녀가 아직 없거나 어리거나 다 컸다는 식으로 구성해, 다양한 제3자의 관점으로 사례를 분석하도록 안내했다. 자녀들의 문제시되는 행동의 원인을 부모뿐 아니라 개인들의 성향 차이에서도 찾아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음을 짚는 접근법도 참신하다.

출생률이 해마다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뉴스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건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빗발치는 민폐 가족 목격담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는 시대. 어떤 부모들은 훈육을 핑계로 드라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부모들은 악의가 없음

에도 유아의 특성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민폐’의 장본인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도 젊은이들이 육아 컨설팅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현상은 새 생명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이웃들을 직접 만나며 그 인원만큼이나 다양한 인간의 특성과 적절한 대화법을 몸으로 배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와 지켜야 할 ‘선’을 명분으로, 결정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여파로 이웃 간의 직접 교류가 단절되고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만연한 현실 공간에서, 새 생명을 낳고 잘 기르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기댈 곳은 TV가 보증하는 전문가의 처방뿐이다. 📺

## 성미술 이야기

#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정용모 신부.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신록의 계절 6월은 눈부시다. 사방을 둘러보면 어디에서나 생명의 물결이 출렁인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돌보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계절인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지낸다. 예수님의 거룩하면서도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고 본받아 살 것을 다짐하는 달이다. 오래 전부터 교회는 시각적인 성미술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성당이나 수도원에는 여러 가지 성상이 있는데, 그중에는 예수상이 있다. 수도자이자 조각가인 최봉자(레지나, 1942-) 수녀는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 성스러움을 담은 성상을 만들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곳곳의 성당과 수도원, 성지에 예수상, 성모자상 그리고 다양한 성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심을 키울 수 있게 한다. 최 수녀가 만든 성상은 장식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아 그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우리나라 최대의 순교성지 가운데 한 곳인 절두산 성지에는 정원 한쪽에 예수상이 서 있다. 최 수녀는 부활하신 주님상을 실제 인물상 크기로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위화감 없이 친밀한 느낌을 준다. 예수님이 마치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함께 머무는 듯한 모습이다.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 뒤에는 사방으로 뻗은 후광이 빛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성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손바닥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흔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최봉자 수녀(레지나, 1942-), <팔마를 든 예수상>, 화강암, 절두산 순교성지, 서울

절두산 성지에 있는 예수상은 다른 곳에 있는 성상과 달리 한 손에 커다란 야자나무(종려나무) 잎을 들고 있다. 이 나뭇잎은 순교자들이 혹독한 고통과 박해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마치 우승한 마라톤 선수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고귀한 삶과 신앙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은 절두산 성지와 우리나라 곳곳에서 순교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아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조각가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 내용을 형상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19-21).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느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현존 방식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달리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도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느님은 마치 신선한 공기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과 주변을 바라보면 주님은 당신의 창조물인 사람과 자연을 비롯하여 모든 것 안에 두루 머무신다. 특히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뚜렷하게 계신다. 절두산의 예수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지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시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꿈지락거리며 은혜로운 삶을 가꾸고 있다. ☺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단체 후원: 한국은행

### 2021년 견진성사 현황

교우회명	인원	구 분	내용
KOTRA	2명	교리기간	4월 29일-6월 3일, 매주 (목),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리
SC제일은행	6명		
국민건강공단	1명		
국회	5명	견진피정	6월 12일(토) 10시~13시, 영성센터 B201
서대문구청	1명		
씨티은행	5명		
예금보험공사	1명	견진성사	6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용산구청	2명		
제주항공	4명		
중랑구청	1명		
청와대	1명	문 의	02-727-2078, 2080 / 010-4799-2078
한국은행	5명		
개인신청	3명		
<b>총</b>	<b>37명</b>		

# 2021 '세계 조부모와 노인주일' 제정 기념 신앙 수기 공모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5)



## 공모 자격

서울대학교에 교적을 둔 신자 중

- 손자녀 세대에겐 신앙을 전달한 경험이 있는 조부모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 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 예비신자, 수도자, 사제 포함)

## 공모 일정

2021. 4. 11(주일) ~ 6. 6(주일)

##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이메일 및 우편 발송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www.isenior.or.kr](http://www.isenior.or.kr) 다운로드)
- ※ 그림은 교구청별 1층 접수함에 직접 접수
- 이메일 : [isenior@hanmail.net](mailto:isenior@hanmail.net)
- 우 편 : 서울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2층 노인사목팀(우.04537)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www.isenior.or.kr](http://www.isenior.or.kr) 참조

## 문의사항

노인사목팀 02-727-2385~6

## 공모 주제

- 손자녀들과 함께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이야기  
— 조부모 수기(신앙을 전달하면서 겪었던 체험, 사례 혹은 에피소드)
-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통해 성장한 나의 신앙 이야기  
— 손자녀 수기/그림(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신앙이 성장한 체험이나 에피소드, 신앙을 전달받은 사례 등)  
예시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성당에 갔던 추억, 함께 기도한 기억,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신앙이야기 등

## 작성 방법

- 수기 | A4 4매 이내 (※ 손글씨로도 응모 가능. 한글 프로그램 작성시 글자 크기 11pt, 줄간격 160%)
- 그림 | 어린이(2009년생부터 가능) : 8절 도화지(형식과 재료는 자유롭게)

## 시상 내용

구분	인원	수상 금액
사랑상	어린이부터 각 1명(총 8명)	각 1,000,000원(총 8,000,000원)
믿음상	조부모까지 각 2명(총 16명)	각 500,000원(총 8,000,000원)
희망상	각 세대별 각 3명(총 24명)	각 300,000원(총 7,200,000원)

주최 ·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 청소년국

#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명동밥집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상징인 '명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위치 : 명동 옛 계성여고 셋별관(학생식당) 1층  
운영일 및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11:00~16:00  
무료 급식 대상인원 : 500~600 명

##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후원하기

신청방법 : 홈페이지 [obos.or.kr](http://obos.or.kr) 전화 02-774-3488

명동밥집 후원계좌	예금주
무료급식 지원 : 우리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활급식 지원 : 우리 1005-304-138483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이송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본 성원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문의 02)774-3488





### Holy Water

Water that has been blessed by a priest.

"By perpetual ordinance I have assigned to you and to your sons and daughters all the contributions from the sacred gifts which the Israelites make to the LORD; this is an inviolable covenant to last forever before the LORD, for you and for your descendants." (Numbers 18:19)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